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우리 당을 따르는 순결한 충정의 일관단심을 간직하고 당의 국방과학정책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이 연구소의 일군들과 같은 숨은영웅들, 애국적인 과학자부대

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의 이름으로 특별감사와 특별상급을 배려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당에서 매우 중시하고있는 국방과학연구기체들중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연구소개건확장공

사들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결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과 높은 애국심, 영웅적투쟁정신

과 투쟁기풍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지위적인 국방력을 전방배로 강화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나라의 국방

공업발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부면부류의 실험과 로고를 바치시며 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학기술발전으로 우리 당의 병진로선과 국방공업정책을 더 높이 만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은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쿠바의 브렌파 라피나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학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학군사령부에서 판도라위성방안을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치밀하게 작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이 조선의 자체력을 시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 부러대면 이미 현명하게도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하시였다. 영국의 BBC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전학군이 준비하고 있는 판도라위성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막자면 조선반도 주변에 수많은 핵전력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울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비핵화를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수리아의 사나통신, 캄보디아의 프레스비시언, 만마인의 인터넷신문 《머 두 트린》,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크 타임

스》, 《현황조보》, 인디아의 유엔아이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인디아 엑스프레스》, 《에이신 에이취》, 《힌두》, 《타일스 오브 인디아》, 지 뉴스 TV방송, NDTV방송, 케마는신문 《알 디야르》,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중국보도망, 인민망, 환구망, 해외망, 청년망, 일본의 교도통신, 《니혼게이시》, 《도쿄신문》, 《마이니체시보》, 《아시아시선》, NHK방송, 도이쉴랜드의 레베아통신, 신문 《더 월드》, 로씨야의 파스통신, 리아 노보스씨통신, 신문들인 《로스토프스카야 브라우더》, 《로스토프스카야 제퍼》, 마야르방송, 인터넷통신 에르베카, 기네 국제, 국제방송, 7개 인민족어방송, 미국의 AP통신, ABC방송, 페데수델라의

신문 《엘 유니베르살》, 페페사우 TV방송과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도 《김정은령도자 판도라위성계획도》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크 타임》, 《현황조보》,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군의 통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병도병에 조선인민은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법집행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에리트레아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 《알 미스리 알야울》 14일부활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면인 조선해방은 조선인민족 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의 투철한 자주로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족의 힘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함에 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힘있게 불어 일으키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말뚝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을 벌려야 하는 항일대전은 세계혁명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었다고 하면서 자주적 기치높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국가TV방송 《에르메제-불비네》는 12일 《마시병스키장》,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을 방영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1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물건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평활무쌍한 유격전법들로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해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도록 하신 김일성위인의 불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도이쉴랜드만제연단, 나이지

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군의 통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13일과 15일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해방은 단지 민족의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전환을 안아온 역사적사면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올렸었다.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마자르, 오스트리아, 기네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들이 진행되었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은 일제의 군사적강압을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병도병에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연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스트리아 현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소 조 책임자와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전민족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힘있게 불태워오시겠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진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기네국방성 대거폭공대 대대장, 부대대장과 기교포세 총회사의 인사들은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오늘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수천만과 함께 대륙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커다란 금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상,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우리 조국의 현실을 특색한 베히프르로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 에르메트 기로스 가르씨야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후대교육체제를 완성하는것은 하나의 꿈으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 정부들이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며 그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삼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를 일떠세우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돌리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어린이들이 어떤 국가적책임을 받고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후대사상의 훌륭한 본보기는 조선에서 창조되고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선대수령들의 뜻을 이어가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교육사업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가적인 많은 투자를 돌려도록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다. 믿기 어려운 현실들을 목격하

면서 우리는 조선인민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부럽없다는 말의 참뜻을 짐작하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것을 자랑하는 행운, 커다란 금지로 간주하여야 한다.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은 세계의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전설적 영웅, 해방의 은인》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 특집, 행사 진행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전설적 영웅, 해방의 은인》, 《역사의 전환점, 조선해방》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고 우리 나라 영화들을 방영하였다. 벨라루스신문 《브레르트》 8월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물건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어 나라를 해방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병도병에 조선인민은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법집행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에리트레아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 《알 미스리 알야울》 14일부활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면인 조선해방은 조선인민족 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의 투철한 자주로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족의 힘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함에 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힘있게 불어 일으키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말뚝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을 벌려야 하는 항일대전은 세계혁명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었다고 하면서 자주적 기치높이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국가TV방송 《에르메제-불비네》는 12일 《마시병스키장》,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을 방영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1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물건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평활무쌍한 유격전법들로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해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도록 하신 김일성위인의 불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도이쉴랜드만제연단,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군의 통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13일과 15일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해방은 단지 민족의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전환을 안아온 역사적사면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올렸었다.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마자르, 오스트리아, 기네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들이 진행되었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은 일제의 군사적강압을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병도병에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연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스트리아 현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소 조 책임자와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전민족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힘있게 불태워오시겠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진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기네국방성 대거폭공대 대대장, 부대대장과 기교포세 총회사의 인사들은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오늘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수천만과 함께 대륙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